

특별인터뷰

뮤지컬 석사학위 가진 학구파 한인 배우

배우 휴 차

내 고향은 무대와 카메라 앞 다양한 삶 통해 실력 갖춰 다양성 추구, 할리우드에도 경쟁 낮은 소수민족이 유리 지금도 미래 위해 꾸준히 노력

“한인 또는 아시안이라는 전제를 벗어 버리고 그냥 연기 잘하는 연기자로, 배우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를 기반으로 활동하다 최근 할리우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인 배우 휴 차(한국명 차형진)씨의 말이다.

휴 차 씨는 성우와 연극, 영화, TV드라마, 뮤지컬, 광고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다. 보스턴 음악원에서 뮤지컬 관

련 최고 학위인 터미널 디그리를 한인 최초로 받은 학구파 배우다.

휴 차 씨는 “할리우드를 비롯해 지금의 미국 영화계는 주류인 백인들보다 아시아인 등 소수민족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주류인종은 그 만큼 경쟁이 심한 반면 소수민족들에게는 경쟁이 낮고 그 만큼 다양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씨는 또 “과거에는 소수민족들에게 대한 영화계의 편견들이 능력있는 사람들의 진출을 막았다면 이제는 과거와 달리 다양성을 포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최근들어 소수민족들의 진출기회가 오히려 넓어진 만큼 개인적으로 실력만 갖춘다면 충분히 경쟁상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 차 씨는 자신의 이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 확신 속에 쉬지 않고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영화나 연극의 인물을 분석하고 연기적인 표현을 익히기도 하도 하루에 몇 시

간씩을 들여 발성과 표정들을 가다듬고 있다.

차 씨는 “아무리 어린나이에 이민을 왔다고 해도 영어 액션트는 이민자들의 고질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발음교정을 위해 별도의 지도교사를 만나 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휴 차 씨는 그의 경력에서도 그렇듯이 성우에서부터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성악을 전공한 차 씨는 음악에도 소질을 보여 뉴욕과 보스턴 등지에서 초청 가수 겸 공연 피쳐링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는 보스턴에서 단독콘서트를 개최했다.

차 씨의 다양한 능력과 경험은 그의 연기철학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다. 고정된 캐릭터가 아니라 다양한 캐릭터를 따라 많은 개성을 보여주는 역할을 충실히 지켜왔다. 쉽게 캐릭터의 성격을 찾고 맞춰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휴 차 씨의 능력은 그가 살아온 배경과 그가 멈추지 않고 있는 연기에 대한 마용가짐이 큰 힘이 됐다. 차 씨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다 다시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뉴욕에서 활동을 하는 등 이사를 많이 다녔다”며 “어디든지 마음을 돌만한 고향이 없는 탓에 무대에 마음을 둘 수 있었다.

한인 배우 휴 차 씨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선입관을 벗어 버리고 단지 연기 잘하는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 한다. 휴 차 씨가 포즈를 취해 보이고 있다.

한편 휴 차 씨는 영국의 브리검 영대학에서 연극과 성악, 무용을 전공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던 경영학은 결국 부전공으로 공부를 마쳤다. 그리고 보스턴 음악원에서 뮤지컬과 연극, 영화를 공부했다. 비보이를 비롯해 재즈, 발레, 탭, 현대무용을 공부하고 태권도와 검도에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연한 영화는 운명의 왕(The Destined King), 잭 트리퍼, 신비 존비 등이다.

신정호 기자



The Korean actor with an MFA in Musical Theater says his home is on the stage and in front of the camera. Hugh Cha gained his industry skills through various life events, and strives to work hard continuously to enhance his career in entertainment.

Published 10-28-2016 in KOOKMIN DAILY NEWSPAPER

By Jung Ho Shin

“It’s not about being a Korean or Asian actor, I’m working hard to become and be remembered as an excellent actor,” says Hugh Cha. The Broadway-based actor recently went bi-coastal with projects in Hollywood and New York City.

Cha is keeping busy with various projects in film, television dramas, musicals, voice over and commercial work. He became the first Korean to receive a terminal degree, which is the highest professional track in a given field of study, in Musical Theater at the Boston Conservatory.

“The American film industry environment, including Hollywood, has become friendlier to minorities including Asians,” Cha explains. “Majority races have a bigger pool of actors so the competition is high,

whereas minorities have less competition and a better chance of getting various types of acting opportunities.

“In the past, biases in the film industry toward minorities closed off opportunities. Nowadays, we live in an era where minority is accepted with magnanimity. ... Opportunities for minority actors have opened up more recently, and those with excellent skills are considered worthy competitor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With a determined philosophy and more opportunistic environment, Cha strives hard to perfect his craft. He frequently analyzes characters in films and plays to learn more about physical expression, and spends hours working on vocal and emotional expressions on a daily basis.

Regarding one of his career obstacles, Cha says, “Having an accent when speaking English is a chronic problem for immigrants, even for those who moved to America at a young age. I still occasionally meet up with a private accent reduction coach to train.”

Hugh Cha started his acting career in NYC, with an emphasis in musicals and voice over work. He studied classical voice, and his singing abilities allowed him to perform in concerts as a guest or featured artist around New York and Boston areas. In 2014, Cha had his own autobiography solo concert in Boston.

His various talents and acting experiences reflect his professional philosophy. Cha has made it a point to play diverse characters and personalities in his career, rather than sticking with one stereotype. This mindset has given him the talent of fitting into any character role, and ability to easily adapt to situations as they come. His acting skills are further strengthened by his personal background and metal attitude toward his craft.

“I moved a lot,” Cha says. “I came to America during middle school, studied in London, and started my career in NYC. ... I don’t consider any city as my hometown. The stage is where I can put my mind to rest, so being on a stage and in front of a camera is my home.”

Hugh Cha studied Music Dance Theater at Brigham Young University, with a minor in Business. He then received his Musical Theater graduate degree in Boston. His skill set includes Bboying, Jazz, ballet, tap, and modern dance. He has a black belt in Taekwondo and is a ranked practitioner in Kendo.

Notable film credits for Cha include the Korean short film *The Destined King*, and short films *Seeking: Jack Tripper* and *Simbi Zombi*.